中國語文學 第 47輯(2006. 6) 65-103 쪽

사이버 교육을 통한 중국문학의 대중화 방안*

김 용 표**

<目 次>

Ⅰ. 문제의 제기
Ⅱ. '중국문학'의 멀티미디어적 특성
1. 동양학 — 감성과 지혜의 '멀티 학문'
2. '중국문학' — 온유돈후(溫柔敦厚)의 즐거운 멀티미디어
Ⅲ. 멀티미디어 문학의 사이버 구현
1. 기존 사이버 교육의 문제점
2. 새로운 문학적 사이버교육 방안
Ⅳ. 맺는 말

Ⅰ. 문제의 제기

모두들 이 시대를 인문학의 위기라고 말한다. 많은 학생들이 독서를 싫어하고 TV, 영화, 오디오, 컴퓨터와 인터넷 등등 현대 과학의 기계문명의 도구에만 탐닉한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문학 수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문학이라면 그저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소위 인기학과라는 '중어중문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도 비슷한 것 같다. 아니, 어쩌면 더욱 심각할 지도 모

* 이 논문은 2006. 5. 13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 영남중국어문학회의 2006년도 상반기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실라버스에 토론을 맡아주신 연세대 이보경 선생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충하여 작성한 것이다. 꼼꼼히 질의해주신 토론자에게 감사드린다.

** 한신대학교 중국문화정보학부 교수

른다. 한자(漢字)에 대한 한글세대의 두려움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중어중문학과의 전공 학생들도 속된 말로 '중국이 뜬다니까' 일단 전공으로 선택하기는 했지만, '문학'과 '한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학'(정확히 말하자면 '언어')분야에 치중하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문학'이라는 단어 앞에 '고전/고대'라는 수식어까지 더해진 '중국고전(고대)문학'이라면, 학생들은 거의 공포 수준의 반응을 보인다. 한자와 중국어만 공부하기에도 벅차고, 중국의 현대문학이라고만 해도 골치가 아픈 터인데, 게다가 중국의 고대문학이라니! 그 옛날 글을 어떻게 해석하여 읽을 수 있을지, 암담하기 짝이 없다. 남의 나라의 옛날 케케묵은 문학을 무엇 때문에 배워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위에 '고(古)'라는 글자에서 느끼는 단절감, 괴리감, 비실용적일 듯한 느낌, 그리고 공자(孔子), 또는 유교(儒敎)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과 위화감도 한 몫 하여 반발감과 거부감은 점점 커져가고, 전공 학생 중에서도 문학(특히 고대문학)을 기피하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대부분 단어 암기나 문장 해석과 같은 훈고학이나 장구학(章句學)적인 접근방법 또는 현상학과 분석철학에 기초한 문학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이 땅의 교육 현실을 생각해보면 그 역시 무리가 아닐 것 같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분석과 논리 위주의 경직된 문학이 진정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문학은 문자텍스트만을 그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연 바람직한 접근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그 문제해결의 방법을 최첨단 과학 교육 시스템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 강의에서 찾고자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방법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시스템은 이공계 학문에 적합하고 인문학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선입견이 지배적인 것 같다.[1)]

1)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발표된 논문이나 사이버대학의 강의 개설과목을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은 대부분 이공 계통이나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선입견은, 다시 말해서 인간 친화적이 아니라 기계 친화적인 인터넷은 정보와 지식의 기능적인 습득에는 유용할지 모르나, 정서의 순화와 가치관의 함양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인문학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는 인식에 토대를 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기계와 인간을 분리된 적대적 개념의 성질로만 인식해야 옳은 것인가? 기계문명의 산물은 반드시 인간 친화적이 될 수 없는가? 기계를 사용하는 존재가 인간일진대, 이용하는 방법의 개발에 따라 기계문명 역시 얼마든지 인간 친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구나 이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기계문명의 새로운 산물이 출현할 때마다 혼란의 과도기를 거쳐 인간 친화적인 사용방법을 모색하며 적응해왔듯이, 인터넷과 사이버 역시 최상의 활용방법을 모색한다면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

필자는 이의 실천에 있어, 인문학의 제반 분야 중에서도 특히 '중국문학'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문학'은 그 본질적 성격에 있어, 멀티미디어의 세계를 최상으로 구현해주는 인터넷 또는 사이버의 세계와 공통분모적인 요소를 대단히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공자의 인문정신과 문학에 대한 인식고찰을 통해 '중국문학'의 멀티미디어적 특성을 학술적으로 검토해보고, 이를 위해 사이버 상에서 어떤 교육방법으로 구현해 나가야 할지, 필자의 홈페이지 운영과 사이버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 발표해보고자 한다.

Ⅱ. '중국문학'의 멀티미디어적 특성

1. 동양학－감성과 지혜의 '멀티 학문'

가장 근원적인 문제부터 생각해보자. '학문'이란 대체 무엇인가? 놀랍게

도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학교수들조차도 '학문'의 한자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문'은 '學文'이 아니라, '學問'이다.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다. 겸허하게 작아지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다. 배움이란 예측하지 못했던 삶의 무수한 갈래 길에 섰을 때, '가장 올바른 길(道)'을 선택할 수 있는 혜안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사물의 내재규율인 '도', 즉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2)]

'학문'이란 단편적인 지식을 머리에 기능적으로 축적해나가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삼라만상의 내재규율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 깨달음을 온 몸으로 끊임없이 실천해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문이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사물의 내재규율을 파악할 수 있는 판단력·통찰력·비판적 사고·창의력 등의 '지혜'를 배양하는 이러한 '학문'의 성격은, 이성(理性)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감성의 영역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감성(感性)'이란 또 무엇인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언급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필자는 이른바 '멀티(Multi-)'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싶다.

인간의 생각의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시각적으로 탁 트인 공간, 즉 열린 공간에서는 직선적·적극적·표면적·현상적·분리적·이성적인 생각의 틀을 지니게 된다. 반대로 시각적으로 막힌 공간, 즉 닫힌 공간에서는 궁극적으로 내면화, 입체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서양의 인문정신을 탄생시킨 자연환경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거침없이 뻗어나갈 수 있었던 '열린 공간'이었다. 이러한 자연환경에서 서

2) ≪大學≫에서는 이러한 혜안과 지혜를 '格物致知'라고 말했다. '格'이란 '나아간다, 파헤친다, 규명하다'는 뜻 '物'이란 事物, 즉 삼라만상이 변화하는 내재규율을 의미한다. '致'는 '이를 치', '知'는 지혜란 뜻. 그러므로 '격물치지'란 삼라만상이 변화하는 내재규율을 파헤치고 탐구하여 지혜의 경지에 이른다는 뜻이다.(≪大學≫: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幾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

구의 학문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현상학적이고 분석적 이성적인 경향을 띄게 되었다. 그러나 동양은 극한의 자연환경에 의해 완전 포위된 '닫힌 공간'이라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엄청난 대자연에 의해 갇혀버린 '닫힌 세계'에서 생활하고 활동했던 동양의 지식인들은, 그리하여 삼라만상의 변화하는 모든 현상을 지엽적 기능적으로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전체적 총체적 종합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통시적이며 직관적인 통찰력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3]

'감성'은 바로 이러한 경향 속에서 배양되는 것이다. 예컨대 기도와 명상은 '닫힌 공간'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만큼 자기의 내면세계로 들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로 진입하기가 쉽다는 이야기다.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小宇宙)로 인식했던 동양적 생각의 틀 속에서는, 명상은 바로 곧 대우주와 하나로 동화되는 것이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로 진입한다는 것은 블랙홀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여행을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평면적인 세계에서의 논리와 이성,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면 당연히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을 감성적이며 직관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입체화 현상, 멀티 현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동양의 학문은 그리하여 언어·문자·문학·예술·사상 등 그 모든 분야에서 감성적 경향을 보이며 상호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4]

---

3) 졸고, <중국문학과 소리의 영성> 206-213쪽 참조, ≪중국학연구≫ 제 30집, 2004. 12.

4) 논문 발표 시, 이 부분에서 토론자는 '명상'이란 인간이 그 어떠한 매체(미디어) 없이 직접적으로 자신과 만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물론 궁극적으로 명상은 그러한 경지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범인이 그 경지에 들어가려면 먼저 '하나를 붙잡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부터 도가나 불가에서 참선 시에 먼저 하나만을 생각하는 '수일(守一)'의 단계를 요구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겠다. 그렇다면 책을 붙잡고 독서삼매경에 몰입하는 것도 일종의 '명상'의 단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다면 컴퓨터에 정신없이 몰두하는 것도 일종의 '명상으로 나아가는 한 단계'라고 볼 수 있지 않

그러므로 동양에서의 학문방법론은 주로 거시적이고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중국에서는 문학이란 영역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학문의 영역을 문학이나 역사·철학·신학·종교·정치경제·사회과학·자연과학 등등으로 분리한 것은 서구식 분리 패러다임의 산물이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서구의 현상학적 이론분석방법론의 유입으로,[5] 중국에서조차 이러한 동양학적 학문방법론의 전통은 단절되고 우리 사회는 '이성'과 '지식'을 최고의 덕목으로 인식하는 서양적 생각의 틀에 의해 지배당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정보화의 시대, 21 세기는 혁명적인 통신 수단인 인터넷의 발달로 클릭 한 번에 헤아릴 수 없이 방대한 양의 정보와 지식을 얻어낼 수 있는 시대이다. 이제는 한 순간에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감성'과 '지혜'의 개념이 미덕으로 존중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감성'과 '지혜'는 결코 비합리적이요 비과학적이 아니다. 전체를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직관적 통찰력으로 파악하는 것이, 분리적이고 단순 기능적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것보다 거시적으로 볼 때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의 학자들이 동양의 '지혜'를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6]

을까? 그 모두가 닫힌 공간에서 인간의 내면세계로 몰입하여 시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 세계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총체적이고도 복합적인 '멀티의 세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5) 서구 학문의 특성에 대해 2000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高行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양 철학의 전통인 **思辨** 즉 이른바 형이상학은 서양언어에서 발원한 것이다. 이런 언어는 분석적 성격의 언어라고 해도 무방하다. …… 심리 분석과 **語義** 분석에 치중하는 당대 서구문학의 주요한 두 흐름은 서구 언어의 이러한 특징에서 비롯되었다. 서구문학은 인간의 심리적 현상을 한없이 파헤치고 또 파헤치며, 단어의 개념을 끝없이 탐구하고 추적한다. 현상학과 분석철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무수한 서구의 문학이론은 모두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문학과 현학, ≪영혼의 산≫에 대하여>중에서 인용. 1991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 동양어 대학에서의 연설문.

6) 지난 20세기는 서양 인문정신이 위기에 처했던 시기였다. 서양의 각종 이념들이 의지하고 근거로 삼던, 절대적이고 기계적인 서양과학이 본질적인 한계에

동양학은 바로 그 '감성'과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 멀티 학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줄 수 있도록 밑받침 해주는 것이 최첨단 과학 교육시스템인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인 것이다.

2. '중국문학' – 온유돈후(溫柔敦厚)의 즐거운 멀티미디어

(1) 온유돈후의 문학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감성'과 '지혜'를 배양하는 교육을 할 것인가, 그것에 달려있다. 이에 대해 동양학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답은, '문학으로 시작하기'다. 주지하다시피 동양학의 근간은 공자가 편찬한 '육경(六經)'이다. 공자는 유가(儒家) 경전의 첫 머리에 《시경》이라는 문학 책을 배치해 놓음으로써, 이러한 '지혜'가 '문학교육'을 통해 습득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문학이어야만 한다는 것일까? 왜 문학을 모든 '학문하기'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일까?

필자는 그 이유를 공자가 문학이 '온유돈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부딪친 것이다. 대변혁은 아인슈타인과 보어(Niels Bohr)와 같은 물리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히 아인슈타인은 서구인들이 신처럼 믿었던 '과학적 진리'라는 것이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광활한 우주에서는 유클리드의 기하학도 적용될 수 없었고, 뉴턴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모든 주요 개념들 — 절대 공간, 절대 시간, 최소입자라는 개념과, 물리적 현상에 엄밀하게 적용되는 인과율도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서구의 물리학자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곤혹스러웠던 점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철학적 개념의 부족이었다고 한다. 고심하던 그들은 마침내 동양에 눈을 돌리게 되고, 음양의 조화에 입각한 동양의 우주관이 아인슈타인의 우주관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엄청난 충격을 받기에 이른다. 그로부터 서양의 선진 학자들은 동양의 인문정신, '조화'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이다. 예컨대 Bohr는 동양의 태극 문양을 보고 난 후, 자신이 주장한 相補性 원리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아, 태극으로 자신의 연구소의 마스코트로 삼았다고 한다. 또 Joseph Needham과 같은 학자도, 동양의 道家 사상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의 유사성을 극력 주장하였다.(Joseph Needham, ≪중국의 과학과 서양≫ pp.38 참조.)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온유돈후'란 무슨 말인가? '온(溫)'이란 '안색이 따스한 모습'이다. '유(柔)'란 '성정(性情), 즉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다. 돈후(敦厚)란 그러한 온유의 경지가 매우 도타운 내면적 깊이에서 비롯된 상태임을 말한다. 요새말로 하자면 보드랍고, 따스하고, 은근하고, 말랑말랑한 것이다. 한대(漢代)의 유학자들은 바로 이것이 《시경》을 통한 공자 문학교육의 특성이라고 말한다.[7] 공자는 문학이란 사회의 미풍양속을 기르고, 인간을 단결시키기도 하고, 가슴속의 스트레스를 발산시켜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8] 왜? 보드랍고 따스하고 은근하고 말랑말랑하게 인간의 마음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간파했던 공자는 다분히 전략적인 차원에서 문학을 모든 '학문하기'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이다.

오늘날 문학이론 서적들은 한결같이 문학이 무엇인지, 그 개념정의를 먼저 시도한다.[9] 그러나 공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가 주목한 것은 문학의 본질이 아니라 효과였다. 문학이 지닌 교화(敎化)의 실용성이었던 것이다. 합리적 실용주의자인 공자는 삶의 본질이나 죽음 이후의 세계, 신(神)의 존재 유무와 같은 관념론적이고 현학적인 명제에는 큰 관심을 기

7) ≪禮記·經解≫: "溫柔敦厚, 詩敎也. [疏] 溫, 謂顔色溫潤; 柔, 性情和柔." 이 대목에서 토론자는 "溫柔敦厚, 詩敎也"는 문학교육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문학 그 자체의 특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공자가 문학을 중시한 까닭은 문학 그 자체가 '교화의 공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敎化'란 무엇인가? 인간의 감성과 지혜를 길러주는 이른바 '全人敎育'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서 공자는 모든 학문을 문학으로 배우고 교육하기를 요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학과 교육은 그러므로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토론자는 문학이 '온유돈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교육도 '온유돈후'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물론 '온유돈후'라 해서 언제나 부드러운 칭찬과 격려만 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사랑의 매를 들 때도 있어야 한다. 강약의 리듬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온유돈후'의 길을 걷는 교육이어야 타당할 것이다.

8) ≪論語·陽貨≫: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羣, 可以怨."

9) 이론적이고 분석적인 접근방법이다. 딱딱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문학에 대해 질리고 들어가는 것이다.

울이지 않았다. 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현실 세계에서 대동사회(大同社會), 즉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할 수 있겠는가 그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문학이란 단지 사람들에게 모든 학문의 궁극적 이치를 보다 쉽게 깨칠 수 있도록 즐겁고 친근하고 재미있게 접근하도록 만들어주는 '이야기의 방법론'이었던 것이다. 그 '온유돈후의 실용성'이 바로 곧 중국문학의 가장 큰 전통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문학'은 문학의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문학이 지닌 온유돈후의 대중적 실용성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그것이 중요했다.

(2) 즐거운 문학

이렇게 동양적 사고의 틀에 의한 '문학'은 '딱딱한 것'이 아니라 '보드랍고, 따스하고, 은근하고, 말랑말랑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문학이란 원래부터 딱딱한 머리로 하는 '이성적인 영역'의 것이 아니다. 쵸콜렛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는 '감성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이란 궁극적으로는 물론 삶의 '진(眞)'과 '선(善)'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먼저 감성적으로 '아름다움(美)'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대 명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 요소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문학은 문학이 아닌 것이다.

그 '아름다움'은 어디서 탄생할까? '아름다움'은 '즐거움'에서 탄생된다.[10] 때문에 문학교육은 그 원리의 첫 번째 항목으로 '즐거움'을 꼽고 있다. "만약 문학이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따분한 것, 괴로운 것으로 인식된다면, 오히려 문학으로부터 학생들을 멀어지게 하는 치명적 잘못이 생긴다."[11] 공자도 말한다. "즐거우면서도 음란한 경지에 이르지 않았구나.

10) 인간의 美的 감각은 인류의 생리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공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朱光潛≪文藝心理學≫, 283-304쪽 <剛性美和柔性美>와 姚一葦≪美的範疇≫ 12-51쪽 <論秀美>, 그리고 拙稿 <고문 음률의 예술적 효과에 대한 연구> 12-14쪽 참조.

슬퍼하면서도 마음이 다친 지경에 이르지 않았도다!(樂而不淫, 哀而不傷)"[12] 그 역시 '즐거움'을 문학의 가장 큰 요소로 분명히 인식하고, 그 점을 활용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문학교육은 반드시 학생들을 '즐겁게' 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학 교육은 어떠한가? 대학의 문학 교육은 온통 관념적인 어휘들로 가득 찬 이론 교육 일색이다. 이래 가지고서야 학생들의 마음을 매료시키기는커녕 문학에 더욱 흥미를 상실하게 하지 않겠는가? 중국문학교육의 현실은 또 어떠한가? 고대중국문학은 또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는가? 혹시 '사고력의 증진과 이해 능력의 신장'이라는 '문학작품읽기' 학습의 목표를 벗어나, 교육자 중심으로 낱말 풀이·자구 해석·문법 지식 설명과 같은 단편적인 기능을 주입식으로 교육하고 있지는 않는가?[13]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옛글은 대단히 난해하다. 한자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한글세대'인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현대의 중국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교육을 담당한 교수에게도 해석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

11) 정동화 외 2인, ≪국어과 교육론≫ pp.398에서 인용. 선일문화사 1996.

12) ≪論語·八佾≫. <關雎>에 대한 공자의 평가다. <관저>는 모든 유가의 경전 중 첫 번째 경전인 ≪시경≫중에서도 맨 첫 번째에 위치한 노래다. 이를 테면 동양학의 창세기 1장 1절인 셈이다. 공자가 이 시가를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배치한 다음, 이러한 평가를 내린 것에는 필경 깊은 뜻이 숨어있을 것이다. 공자가 ≪논어≫에서 당위성의 화법을 즐겨 구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평어는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한다. "문학(인생)이란 즐겨야 한다. 그러나 방탕과 음란의 경지에 이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문학이란 슬픈 감정도 담아야 한다. 그러나 그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극단적인 경지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치 인생에 슬프고 힘든 때가 찾아와도 그 때문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고 살살 화를 달래면서 갈 길을 가야 하듯이."

13) 최근 한국의 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읽기'지도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학자 이대구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은, 우리가 마땅히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그에 의하면, '읽기'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낱말풀이나 문법지식 위주로 주입식 교육을 하는 까닭에, 학생들의 사고력과 비판력을 저해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어과 교육방법론≫ 286-290쪽 참조. 이대구, 대교출판사, 1996.

다.[14] 그런데 이렇게 난해한 중국의 옛글과 문학작품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한 학기에 30~50여 시간밖에 허용되지 않는 대부분 대학의 여건 속에서, 한자도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에게 그 올바른 해석 능력을 배양하려는 시도가 과연 가능한 일일까?

여기서 우리는 '읽기'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목적 등 원론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읽기'란 단순히 기능적인 문자언어의 이해 능력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 추리, 판단, 사고(思考) 등의 고등 정신 능력과, 정서의 순화와 가치관을 함양하는 대단히 포괄적인 활동이라고 한다.[15]

'읽기'란 이렇게 바람직한 인류의 지적 활동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읽기'에 흥미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교육학 학자들은 한결같이 '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유발'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학생과 독자들의 '읽기'에 대한 동기와 의욕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인가? 미국도서관협회에서 채택한 '읽기' 지도방법의 원리에 의하면, '읽기'에 대한 의욕은 목적성과 흥미성에서 유발되고, 목적성과 흥미성은 또 글의 내용에 대한 독자의 '사전 지식'에서 비롯된다고 한다.[16]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글을 읽는 목적과 흥미를 미리 얻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중국문학작품에 대한 올바른 '읽기'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가 중국문학작품을 읽는 궁극적 목적은, 지금은 실용적으로 사용되지도 않는 듯한, 중국의 옛글과 문학작품에 대한 단순 기능적인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아닐 것이다. 또한 대학이 졸업 후 중국문학 전공자가 되고자 하는 일부 극소수의 학생만을 위해 교육하는 기관이 아닌 바에야, 절대

14) 심지어 중국의 대 석학 梁啓超마저도 ≪書經≫의 반도 해석하지 못하겠노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古文은 난해하기 이를 데 없다. 王國維, ≪觀堂集林≫卷2, <與友人論詩書中成語書> 참조.
15) ≪國語科教育論≫253쪽 참조, 鄭東華 외 2인, 선일문화사, 1996.
16) 上同書, 277쪽 참조.

다수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중국의 옛글에 대한 단순 기능적 독해 능력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국문학작품의 '읽기' 교육은 먼저 즐거움을 선사하여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나아가 그 궁극적 목적을 독자(학생)들의 상상・추리・개괄・판단・사고 등의 고등 정신능력을 개발하고, 정서의 순화 및 가치관을 함양하는 데 두어야 한다. 아울러 담당 교육자는 사전에 이러한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학생들의 기대와 흥미를 유발시켜줌과 동시에 문학작품의 해석에 대한 부담감도 불식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문학교육은 크게 '말하기', '듣기', '읽기'와 '쓰기' 등 네 가지로 나뉜다. 그 모든 영역에서 즐겁고 따끈따끈하고 말랑말랑한 교육이 실천되어야 한다.[17] '읽기'란 '작품감상하기'다. '쓰기'란 그 감상을 '표현하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읽기'는 해석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쓰기'는 이론적으로 암기하여 '시험보기'에 그치고 있다. 작품을 감상하고 독후감을 쓰는 것은 중・고등학교에서나 교육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입시지옥에 시달린 학생들이 언제 '즐거운 읽기(감상하기)'를 교육받을 여가가 있었단 말인가? 너무나도 심각한 교육의 방치요, 태만이 아닐 수 없다. 하루속히 대학에서도 '즐겁게 읽고' '즐겁게 쓰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멀티미디어 문학

그런데 '즐거움'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인간의 즐거움은 감각의 충족에서 온다. 인간이 지닌 다섯 가지 감각을 많이 만족시켜줄수록 즐거움은 더욱 더 풍성해진다. 이른바 멀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문학에서 운용할 수 있는 감각은 문자가 주는 시각적 효과 하나뿐

17) '말하기'와 '듣기'는 다시 어학의 영역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의 토론 대상은 일단 '읽기(감상하기)'와 '쓰기(비평하기)'로 국한하기로 한다.

일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것으로 독자의 상상력을 불러 일으켜 나머지 감각들을 연상시키게 하는 수법이 문학의 유일한 감정 전달 방법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Literature'의 개념이다. 서구의 'Literature'는 '문자(letter)'를 텍스트로 삼는다. 'letter'는 시각적이고 현상학적인 개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서구의 'Literature'는 미시적이고 개별적이며 분석적이고 이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문학(文學)'이란 단어의 개념은 서구의 'Literature'와 일치하지 않는다. 19세기 말, 동양학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일본학자들이 잘못 번역한 것이다.[18] 'Literature'는 이를 테면 '문장론(文章論)'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천착하면 화려하게 글재주를 부리며 글 장난을 하거나, 어렵고 딱

18) 일본학자들이 잘못 번역하여 오늘날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예는 무수히 많다. 첫째, 'Philosophy'를 '哲學'이라고 번역한 것. '철학'이라는 단어는 일본 학자들이 잘못 만든 신조어였다. 아예 중국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 단어로 'Philosophy'의 개념을 소개한 것은 큰 오류다. 'Philosophy'는 차라리 '문학'의 개념에 가깝다. (김세환, ≪끝나지 않은 식민지 학문 100년≫)
둘째, 'Religion'을 '宗教'로 번역한 것. 동양에서의 '학문'이란 이미 일정 정도 서구에서의 종교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전통 학문에는 '종교'라는 학문 분야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불교의 테두리 안에서 가끔 사용될 뿐이었던 '종교'라는 단어가 오늘날과 같은 개념으로 바뀐 것은 19세기의 일이다. 절대자로서의 '神'의 개념이 내포된 서구의 'religion'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동양에 소개되면서, 일본 학자들이 엉뚱하게 이 '종교'라는 단어를 그 번역어로 차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1881년 이노우에 테쓰지로(井上哲次郎) 등이 ≪哲學字彙≫를 편찬하며 이렇게 번역함) 게다가 중국의 헌법이 비록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는 했으나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도 내로 규정함으로써, 서구에서 들어온 '종교'의 개념에 대한 혼돈은 아직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셋째, 'Myth'를 '神話'로 번역한 것. 'myth'는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옛날 사람들이 신들에 관해 지어낸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스토리가 상징하는 '인간의 내면적인 모종의 思惟'를 의미한다. 때문에 N. Frye와 같은 학자는 신화란 결국 '原型(Archytype)'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한 내재적 의미로서의 'myth'를 일본학자들은 '신화'라는 말로 번역하여,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단순한 현상학적인 이야기로 착각하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고 만 것이다. 때문에 오늘날 중국에서는 '神話'라고 하지 않고 '謎思(mísì)'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myth'와 발음도 비슷하고, 의미상으로 볼 때도 '수수께끼와 같은 생각'이라는 뜻이 되므로, '神話'라는 번역보다는 훨씬 더 탁월하다.

딱한 이론으로 보통 사람들을 주눅 들게 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동양에서의 '문학'은 다르다. '문(文)'이란 원래 '무늬 문(紋)'이었다.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무늬를 놓듯 상형문자라는 그림글자로 그려놓았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중국에서의 '文'은 서구의 'letter'의 성격에 더하여, 상징적이고 내면적이고 청각적인 특징도 지녔다고 하겠다.

'文'이 청각적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동양에서의 '소리듣기'란 '공기의 떨림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소리'를 듣는 단순한 '청각작용'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文'을 바라보며 그 상징성을 음미하는 가운데, 우주와 대자연과 인간의 본질에서 울려나오는 '내면의 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온 몸으로 느끼는 행위였다.[19] 이렇게 '文'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은 동양 지식인에게 있어서 전통적 학문하기의 한 방법이었던 것이다.[20]

---

19) 이러한 인식은 주로 老莊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아래의 기록들을 보자. "가장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 소리다.(大音希聲。)≪老子 41章≫", '道'는 소리 없는 소리다.(道無聲。)≪莊子·知北遊≫,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다.(無聽之以耳, 而聽之以心。)≪莊子·人間世≫", "아득한 것을 바라보고,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다. 아득한 그 속에서만 깨달음이 있고, 소리 없는 그 소리 속에서만 조화로움을 듣게 된다.(視乎冥冥, 聽乎無聲。 冥冥之中, 獨見曉焉; 無聲之中, 獨聞和焉。)≪莊子·天地≫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내면의 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귀에 들리는 현상의 소리보다는, 마음으로 듣는 '들리지 않는 소리(希聲)', '소리 없는 소리(無聲)'와 같은 '내면의 소리'야말로 가장 중요한 참된 소리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노장 사상에서 많이 엿보이지만 유가의 공자에서도 자주 엿보인다. 졸고, <중국문학과 소리의 靈性> 참조, ≪중국학연구≫제30집, 2004. 12.

20) 이 부분에서 토론자는 일반적으로 볼 때, 중국문자는 표의문자이고 서구는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자로 이루어진 중국문학이 시각적이고, 음성중심주의인 서구의 문학은 청각적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흔히 청각효과를 시각효과로 잘못 인식한다. 서구의 페러다임은 기본적으로 분리의 페러다임이다. 소리와 문자를 분리시켜 개별적이고 기능적으로 인식한다. 서구의 표음문자는 이를테면 디지털이다. 개별적인 단어, 기능적인 문법과 이론 중심이다. 그 문자 속에서는 살아 숨쉬는 감정의 기복이 멜로디처럼 이어지지 않는다. 소리는 존재하되 기계음에 가깝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소리와 문자를 따로 구별하지 않았다. 통합적이고 전체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중국문자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독립적으로 보이는 그 세계에 무궁무진한 우주가 아날로

하지만 실용주의자인 공자는 일단 '현상의 소리'에서 비롯되는 청각적 효과를 더욱 중시하였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시(詩)에 의해 촉발되고, 예(禮)에 의해 확립되며, 음악에 의해 완성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21] 즉, 소리야말로 인류의 성정(性情)과 심령을 감화시켜 인의(仁義)의 도(道)를 흔연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22] 그러나 모든 소리가 그러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공자는 보드랍고 말랑말랑한 선율만이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주고, 나아가 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23]

공자가 유가의 모든 경전의 맨 처음에 자리매김해놓은 《시경》도 따지고 보면 순수하게 'letter'로 이루어진 문자텍스트라고 할 수 없다. 《시경》은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되었던 노래 모음집이다. 수록된 노래가사만 보더라도 수많은 의성어가 등장한다. 《시경》의 첫 번째 노래인 <관저>의

그처럼 펼쳐진다. 그 속에 진정한 소리가 내재되어 있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그 속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삼라만상의 내재규율을 상징적으로 압축하여 담고 있다. 그 글자를 명상의 세계에서 음미하면, 온 몸으로 그 氣를 느낄 수 있고, 그 속에 내재된 살아있는 '소리'의 흐름을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다. 졸고, <중국문학과 소리의 靈性> 참조, 《중국학연구》제30집, 2004. 12.

21) 《論語·泰伯》: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22) 李澤厚 《中國美學史》 pp.123 <孔子的美學思想>: "孔子認爲音樂能改變人們的性情, 感發人們的心靈, 使人自覺地接收和實行仁道."

23) 《論語·八佾》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다: "아하, 음악이 무엇인지 알 것 같도다! 처음 시작할 때는 調和를 이루는 듯 하구나! 이어지는 선율은 순결한 듯 싶구나! 明亮한 것 같구나! 끊일 듯 이어지는 듯싶구나! 그럼으로써 (人性의 陶冶를) 이루어 주는구나! (樂, 其可知也! 始作, 翕如也! 從之, 純如也! 皦如也! 繹如也! 以成) 공자는 여기서, 처음에는 부드럽고 여유 있는 선율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어서 간명하고 均衡的인 선율로 마치 삶의 이치를 사근사근 일러주는 듯 만들며, 마지막 끝 부분은 끊일 듯 이어지는 아련한 선율로 무궁한 여운을 던져주는 일련의 선율 운동을 특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공자는 인성을 감화시킬 수 있는 청각적 효과를 지니고 있는 소리는 원만한 곡선을 그리며 멜로디의 주기성(週期性)을 보여주는 온유돈후의 여성적 선율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졸고, <페미니즘 시각에서 고찰한 중국 산문의 陰柔 풍격에 대한 연구> 참조. 《중어중문학》제26집, 2000. 6.

맨 처음 구절, 동양학의 창세기 일장일절도 "꾸륵~ 꾸륵~(關關)" 정겨운 물수리 노래 소리를 녹음하여 들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게다가 종이도 아직 발명되지 않은 시대였으니 일반인들이 문자텍스트를 직접 대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터. 결국 《시경》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자텍스트라기보다는 소리텍스트의 성격이 더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공자는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던 소리의 모음집으로 모든 학문하기의 출발로 삼았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문학이 얼마나 멀티미디어적인지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인간은 누구나 문자보다는 언어를 통해서 훨씬 더 화자(話者)의 감정을 실감나게 느낀다. 인간의 언어를 통해 구현된 소리의 속도·고저(高低)·강약(强弱)은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인류의 공통된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급변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고 조용한 분위기에서는 그만큼 느려지게 되어있다. 또 강한 소리는 웅장함과 강건함 등의 정서를, 약한 소리는 유순함·섬세함·나약함 등의 감정을 나타낸다. 언어의 속도나 강약이 일으키는 변화는 이렇듯 인류에게 공통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24] 소리에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결합성'이 있다. 때문에 소리는 인간의 감정을 전달하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25]

24) 많은 학자들이 시·소설·희곡·산문 등 모든 문학 장르의 가장 좋은 감상법으로 '낭송'을 꼽고 있다. '낭송'은 작품의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학 작품의 가장 큰 '즐기기'이다. ≪국어과 교육론≫ 320~321쪽, 400~415쪽 및 ≪국어과 교육방법론≫ 302~307쪽 참조. 拙稿 <古文 音律의 예술적 효과에 대한 연구> 참조. ≪中國學研究≫제 9집, 1994.

25) 소리의 결합적 감성적 특성에 대해 서구의 언어학자 월터 J. 옹은 이렇게 설명한다. "시각은 분리하고, 청각은 합체시킨다. …… 시각은 사물을 토막 내어 감지한다. 즉 방을 본다거나 풍경을 보기 위해서는 눈을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들을 때에는 동시에 그리고 순간적으로 모든 방향에서 소리가 몰려온다. …… 시각은 토막 나는 감각임에 반해서 소리는 통합하는 감각이다. …… 목소리로 된 말은 사람들을 굳게 결속하는 집단을 형성한다. 화자가 청중에게 말을 하면, 청중 사이에, 그리고 화자와 청중 사이에도 일체감이 형성된다. 그런데 만약 화자가 청중에게 자료를 읽게 하여 혼자서 독서의 세계에 들어가면, 청중의 일체성은 무너지고 만다. 쓰기와 인쇄물은 분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월터. J.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113-119

중국 역대의 수많은 문인들은 이러한 소리의 효과에 주목하고, 그 장점들을 문학작품의 창작과 감상에 적극적으로 운용하였다. 작가는 감정의 기복이 멜로디처럼 변화하는 생동감이 충만한 '소리의 글'을 쓰고, 독자는 작품 속에 내재된 그 소리를 낭송으로 재현하며 작가의 감정과 하나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중국 산문의 창작 및 감상 이론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전통이었던 것이다.[26]

그러나 20세기 들어 현상학과 분석철학에 입각한 서구의 문학이론이 쏟아져 들어오자, 중국문학 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던 이러한 소리의 전통은 추상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소외되고 무시되어 버렸다. 소리는 사라지고 딱딱하게 죽어있는 문자만이 남아버린 것이다. 따스한 감성은 사라지고 차가운 이론만이 '학술'이라는 명목 하에 문학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학생들이 어찌 문학 수업을 기피하지 않겠는가. 어찌 중국고전문학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겠는가 .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돌입한 현대에서는 문자에 입각한 텍스트 접근방법은 이제 한계에 이르고 있다. 첨단 전자매

쪽. 문예출판사, 1995) 예컨대 대형 강의를 한다고 치자. 넓은 강의실 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청각을 배제하고 시각에만 의지한다면 반드시 눈을 전후좌우로 이리저리 움직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막토막 시야에 분리되어 들어오는 여러 개의 이미지를 뇌리에 모아 **理性**의 힘으로 종합 분석하여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시각이란 이렇게 분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理性**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청각은 다르다. 소리는 나의 **前方**뿐만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골고루 퍼져간다. 소리는 동시에, 그리고 순간적으로 모든 방향에서 한꺼번에 우리의 귀로 몰려들어오기 때문에, 청각 하나에만 의지해도 강의실 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소리를 통해 강의실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감정은 금방 한 덩어리가 된다. 어수선하고, 냉랭하고, 차분하고, 즐겁고, 뜨거운, 강의실 안의 그 모든 분위기는 소리에 의해서 조성된다. 청각과 소리는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결합시켜주는 통합적이고 감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졸고, <소리로 표현된 중국 산문의 생명력> 참조. ≪중어중문학≫제35집, 2004. 12.

26) 졸고, <소리로 표현된 중국 산문의 생명력> 참조. ≪중어중문학≫제35집, 2004. 12.

체의 등장으로 소리를 보존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는, 문자가 지니는 장점(기억 보존의 용이성)은 더 이상 장점이 아니다. 문학의 연구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때다. 기존의 시각적 문자텍스트 위주의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청각적 각도를 병행하여 직관적이고 감성적이며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방법으로 새롭게 문학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은 시각적 효과와 청각적 효과를 겸비한 중국문학의 멀티미디어적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최상의 문학교육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 역으로 말해서, 인터넷상의 사이버 교육은 반드시 이러한 중국문학의 청각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식과 정보, 분석과 논리 위주의 인터넷 교육이 아니라 지혜와 감성으로 인간을 결합시켜주는 소리의 교육을 사이버 상에 구현해야 한다. 그래야만 컴퓨터라는 차가운 기계의 장벽 속에 고립된 학습자와 교육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감성과 지혜의 학문을 배우고 익힐 수 있다.

Ⅲ. 멀티미디어 문학의 사이버 구현

1. 기존 사이버 교육의 문제점

우리나라에 인터넷 열풍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96년 초의 일이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인터넷의 중요성과 잠재능력에 대해서 떠들썩하게 홍보하고, 산업계와 교육계에도 인터넷 열풍이 불어 닥쳤다. 특히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추세인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인터넷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보급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서나가는 인프라 망이 구축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근거로 정부에서는 각급학교에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2001년부터 지금까지 9개의 사이버 대학이 문을 열었고, 인터넷이나 내부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e-Learning, 즉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는

기업의 숫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e-Learning 산업의 규모가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27] 그러나 사이버교육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 같다. 거의 완벽한 인프라 망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교육 콘텐츠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실제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면대면(面對面)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떨어진다는 점 등이 그 주된 이유인 것 같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 교육의 활용에 관한 논문들이 최근 수 년 동안 거의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과문한 탓인지 아직도 문제의 근본을 파악한 연구자는 발견하지 못했다. 사이버 교육은 최첨단 과학교육 시스템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습득하는 교육에 어울리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사이버 교육은 인문학, 특히 감성과 지혜의 동양학적인 문학교육의 구현에 가장 부합한다.

'사이버(cyber)'란 무슨 뜻인가?[28] 인터넷 망을 통해 구현된, 그러나 현실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란 뜻 아닌가? 사이버는 상상력의 세계다. 상상의 세계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의 여러 가지 감각을 만족시켜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문학과 기본적으로 완전히 같은 영역에 속한다. 동양적인 생각의 패러다임에 입각하면 사이버는 바로 곧 문학의 세계인 것이다.

사이버의 세계는 문학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감성적이다. 차가운 기계

27) 정부는 e-Learning 산업의 국내 시장규모를 2006년 1조7000억원에 이어 2007년에는 2조5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게임산업(8,300억원)과 영화산업(3300억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인구 2명당 1명꼴인 인터넷 이용자 수와 높은 교육 소비수준을 감안할 때, e-러닝 산업은 앞으로 연평균 32.5%의 고성장이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교육의 실태와 장단점>, http://cafe.naver.com/jbju89/858)

28)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구축되는 세계를 'cyber'라고 부르는 것은, 미국의 SF작가인 William Gibson이 '가상공간(cyberspace)'이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속의 가상 세계를 돌아다니며 웹서핑을 하다가 마음을 사로잡는 '상대방'을 만나면 마치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정신없이 몰두한다. 사이버의 세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게임이나 포르노물에 쉽게 빠져드는 인터넷의 중독성이라는 것도 역설적으로 그 세계가 얼마나 감성적인지 상징적으로 시사해주는 것 아닐까? 마치 독서에 흥미를 붙이지 못하던 사춘기 시절 이른바 '빨간 책'에 탐닉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문학과 독서 자체를 비방하고 금지시키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그 대신 청소년들이 읽어야 할 양서(良書)를 권할 뿐. 사이버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매료당할 만한 즐겁고 유익한 인문학콘텐츠를 자꾸만 개발하여주면 되지 않겠는가?

사이버의 세계는 문학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사마천이 문자텍스트를 통하여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하여 공자를 만났듯이, 우리도 사이버가 구현하는 멀티미디어 텍스트를 통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옛날 중국의 지성인들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후세에 영원히 전하기 위하여 글을 썼다. 이른바 문학의 불후론(不朽論)이다. 왜 글로 쓴 것일까? 오늘날과 같이 첨단 과학기기로 '현상의 소리'를 보존해 둘 수 없었던 그 당시에는, 문자 안에 '내면의 소리'를 담은 글로 표현하여 타인에게, 그리고 후세에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글, 즉 문자텍스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타인과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했다. 인간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인 '소리'를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간은 이제 얼마든지 사이버 상에서 문자텍스트와 함께 소리텍스트도 함께 구현하는 본격적인 멀티미디어 문학의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사이버의 세계는 문학과 마찬가지로 독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멀티텍스트의 작가는 문자텍스트의 작가처럼 독자를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독자에 대한 그 어떤 선입견도 가지지 않는다. 가령 예를 들어 일생동안 만나지 않고 편지만 주고받으며 우정, 또는 애정을 가꾼 사이라고 하자. 그것은 분명 문학의 세계다. 그 세계 속에서는 상대방의 외모를 알 수 없다.

오로지 내면의 세계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사이버의 세계는 더욱 그러하다. 외모나 성별, 나이 따위에서 비롯되는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면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사이버의 장점이자 순기능인 것이다.

사이버가 지니는 역기능은 그것을 감성의 미디어로 생각하지 않고, 딱딱한 지식과 정보만을 제공하는 차가운 기계로 인식하는 데서 탄생한다. 예컨대 인터넷 활용 교육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모든 논문은 한결같이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그러한 논문의 견해에 따르면, 과거의 학습자들은 교육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는 추종자의 역할이었지만, 인터넷 교육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9]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자칫 심각한 사이버의 역기능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는 비단 사이버가 아닌 현장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자의 '학문'과 '교육'에 대한 인식 부재다. '학문'을 지식과 정보의 제공과 습득 차원으로만 인식하고 '교육'은 학습자를 강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으로만 인식한다면, 사이버 교육은 물론이요 현장 교육도 실패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만약 학습자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학습자는 교육하지 않고 도태시킬 것인가?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 논리는 교육이론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 얄팍한 지식을 판매하겠다는 상인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이버의 순기능을 개발할 것인가? 먼저 인문학이 딱딱하고 엄숙함으로부터 탈피하여 따끈따끈하고 말랑말랑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 멀티미디어로 구현된 즐겁고 유익한 감성적 인문학 콘텐츠를 갖춘 사이버 강좌를 자꾸만 개발하는 것만이 인터넷의 순기능을 배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 어떤 내용의 사이버 교육이 되

29) 백영균, ≪인터넷과 교육≫, 양서원, 1997. 최수영, <인터넷과 영어교육>, ≪인문과학연구≫3, 1997.2. 동덕여대 인문과학연구소. 그 외의 거의 모든 관련 논문에서도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어야 할 것인가? 정답은 없다. 모든 것이 출발 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만 필자의 홈페이지 운영과 사이버 강의를 모델로 삼아, 아래와 같이 함께 토론하며 연구 검토해보고자 할 따름이다.

2. 새로운 문학적 사이버교육 방안

(1) 멀티미디어 텍스트 제작의 필요성

모든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의 운용에 필요한 텍스트를 지니고 있다. 사이버 교육도 마찬가지다. 그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멀티미디어 텍스트의 작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작성법을 토론하기에 앞서 먼저 기존의 문자텍스트는 어떻게 작성해야 좋을지, 그 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모든 텍스트는 그 내용에 앞서 최대한의 이미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편집되어야 한다. 물론 문학작품은 내용이 중요하다. 독자는 작품을 읽는 가운데, 작가가 성공적인 문자의 운용으로 형성해놓은 이미지를 통해 작가와의 정감(情感)을 공유하게 된다. 그러나 외관상 그 문자텍스트가 시각적으로 주는 첫 인상, 즉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효과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더욱 중요할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독자와 작가의 첫 대면은 작품이 수록된 서적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때 독자/학생들은 그 서적/교재의 구조를 살피며 작품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첫 인상을 얻게 되는 이 과정은 의외로 뒷날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의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30] 그러므로 만약 교재에 대한 첫 인상이 시각적으로 깔끔하고 산뜻하지 못하고 어지럽게 배열되어 있다는 인식을 주면, 독자/학생의 흥미와 의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여 교육은 필경 실패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교재는 내용이 난해하면 난해할수록 시각적 효과를 더욱 최대화시켜서

30) ≪국어과 교육 방법론≫, 263쪽 참조. 이대규, 대교출판사, 1996.

편찬해야 한다. 이것은 비단 문학 교재에만 적용되는 사항이 절대로 아니다. 모든 학문의 모든 분야에 공히 적용되는 원리이다. 최근 중·고등학교 교재들은 수학교과서도 국어 책이나 만화책처럼 편집되고 있는 바, 모두 이러한 까닭 때문이다.

그러나 텍스트의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뛰어난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각적 효과는 주로 첫 인상을 좌우할 뿐, 강의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청각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리에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결합성'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모든 종류의 텍스트는 반드시 이러한 소리의 청각적 효과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제작되어야 목적한 바의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념해야 할 점은 소리를 담은 멀티미디어 텍스트라고 할지라도 생명력이 넘치는 소리가 아니라 단순한 컴퓨터의 기계음 같은 것이라면 청각적 효과를 제대로 살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텍스트는 학습자의 흥미를 오래 유지시키지 못한다.[31] 소리가 담긴 멀티미디어 텍스트라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 숨쉬는 감정의 성분을 생생하게 구현해야만 학습효과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유념하여 제작한 각종 텍스트는 어떤 방법으로 다수의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인가? 가장 편한 방법은 대학 내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지만, 그보다는 교육자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된다. 대학 내의 기존 시스템은 대부분 지식과 정보의 제공을 위주로 편성된 것이어서 감성과 지혜를 배양하고자 하는 문학적 사이버교육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1) 예컨대 외국어 학습을 위한 소리미디어 텍스트가 감정의 성분이 전혀 담기지 않고 기계적인 발음만 들려주는 녹음테이프라면 학습자의 학습의욕을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다.

(2) 교육자의 멀티미디어 텍스트 제공

필자는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중국어, 중국문학, 중국문화에 관련된 여러 종류의 텍스트를 탑재하고 누구에게나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32] 홈페이지의 명칭은 [김용표 선생님과 함께 중국, 중국말, 중국문화와 중국문학으로 떠나는 싱그러운 삶의 여행(Dr. Kim's Green Journey into China)]이다.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감성과 지혜를 추구하는 사이트의 성격을 알리고자 정한 제목이다. 이 사이트는 크게 [오리엔테이션], [만남의 터], [글벗여행], [동영상여행] 등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영역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오리엔테이션] : 홈페이지 전체의 성격을 소개하는 영역이다. 필자는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모든 강의를 '여행'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도 '여행'의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학생들이 필자를 부르는 호칭도 권위적인 냄새가 나는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아니라 '가이더님'이며, 필자 역시 학생들을 '나그네'라고 호칭한다.[33]

32) www.drkimchina.com 필자가 모든 강의를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하는(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필요) 이유는 대중화의 당위성을 지니고 있는 중국문학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동양학에서의 교육이란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대중의 인성을 교화하는 것이다. 즉 중국문학이란 그 성격상 필연적으로 대중화의 당위성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인터넷의 정보와 자료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공유성'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33) http://www.drkimchina.com/2commu/orientation.htm 필자가 다년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오늘날 가장 바람직한 교육자 상(像)은 '친구' 같은 선생님이다. '교수님'이라는 호칭은 학생들에게 무척 권위적인 느낌을 준다. 이처럼 교육자와 학습자 사이에 처음부터 거리감과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다면 그 강의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육자 중심으로 이끌려지게 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이더'와 '나그네'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곧 익숙해져서 아주 친근하게 다가온다. 교육자와 학습자 간에 동반자적인 강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② [만남의 터] : 학습자들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성격의 공간이다. [수업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묻고 답하기], [여행 후 소감], [여행 사진], [보고서 제출] 및 각종 소모임 게시판이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특별활동으로 [실크로드 스터디그룹] 코너를 개설하고 [실크로드 강의실]에서 중국 서부지역을 소개하는 강의를 계속 올리고 있다. 이 강의는 멀티미디어 텍스트를 작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즉 사이버 공간에 현장 강의실에서 말하는 말투 그대로 글을 써서 올린 후, 태그 기법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음악과 사진, 지도 등을 올려서 시각적 효과와 청각적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정규 강의가 아니라 일종의 '스터디그룹' 성격이지만 매 강의마다 70~8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학습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34] 학습자들의 자체 학습과 교육/학습자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③ [글벗 여행] : 필자가 글로 쓴 강의 보조용 문자텍스트를 탑재한 영역이다. 글쓰기 당시에 가장 유념한 것은 강의하는 말투 그대로를 옮겨놓으려고 노력하였다. 독자들로 하여금 글을 읽으며 필자의 살아 숨쉬는 목소리를 듣게끔 '소리의 글쓰기'를 시도한 것이다. 이 영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a. 드넓은 중국땅 :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중국대륙을 여행한다는 가상 하에 소설 형식으로 쓴 글이다. 중국 여행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각 지방의 문화적 명소는 어떤 곳이 있는지, 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가운데 중국 사랑의 마음이 샘솟도록 노력하였다.[35]

b. 춤추는 중국말 : 동영상 강의 [춤추는 중국말]을 문자텍스트로 바꾸어놓은 것이다. 딱딱한 문체를 벗어나 생동감 있는 구어체로 강의 현장을 글로 녹음해놓았다. 도서출판 이레에서 출판하였다.[36]

c. 황홀한 중국요리 : 이 문자텍스트는 단순히 중국요리를 소개해놓은 것이 아니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여 소설처럼 글을 써내려가는

34) 일례로 http://www.drkimchina.com/bbs/zboard.php?id=news&no=10 참조.
35) http://www.drkimchina.com/2literal/literal.htm
36) http://www.drkimchina.com/2literal/dancing_text.htm

가운데, 중국 음식문화의 정신, 나아가 중국문화의 근본 성격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하였다.[37]

d. 기타 : 논문· 평론· 번역· 잡문 등을 탑재한 [자료실]과, 회원들이 올려놓는 [동영상자료실], 강의 시 사용하는 프린트 물을 탑재한 [강의록] 등이 있다.

④ [동영상 여행] : 동영상텍스트를 탑재하여 사이버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곳에 올려진 동영상텍스트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에 걸쳐 off-line 강의실 현장에서 수강생들과 함께 실제로 강의한 내용을 비디오로 녹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특별히 첨단 시설을 갖춰놓은 사이버 전용 강의실에서, 교육자 혼자서 일방적으로 강의하거나 형식적으로 몇 명의 학생만 앉혀놓고 촬영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첨단 기술을 응용한 소프트웨어의 제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생생한 현장감과 강의의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38] 업그레이드를 자주 할 필요도 없다. 지식과 정보 제공이 목적이 아니라, 감성과 지혜의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동영상 강의과목은 다음과 같다.

a. 춤추는 중국말 : 중국어의 음악적 특성에 착안하여 손짓 몸짓으로 춤을 추며 중국어의 높낮이와 리듬감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교육하는 동영상 강의다. 초보자를 위한 [즐거운 중국말] 과목과, 중급자를 위한 [구연동화] 과목, 듣기 연습을 위한 [통박으로 듣기연습] 과목을 개설해놓았다. 주로 오프라인 강의의 보조용으로 사용한다.[39]

37) http://www.drkimchina.com/2literal/food_text.htm

38) 학습자의 반응에 의하면 마치 자기 자신도 강의실에 앉아서 직접 수업을 듣는 기분이라고 한다. 수업을 시작할 때, 교수와 학생이 중국어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온라인에서 녹화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함께 인사를 하고, 교수가 오프라인 강의실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면 마치 온라인 강의실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것처럼 조마조마해진다고 한다. 문학작품을 읽는 것처럼 감정이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오프라인 교육현장을 직접 녹화하여 온라인 강의에 활용하는 것이, 면대면 강의가 아니라는 사이버 교육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관건은 강의가 얼마나 즐겁고 보드랍고 따끈따끈 말랑말랑하면서도 유익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39) http://www.drkimchina.com/2dancing/dancing_speking1.htm

b. 중국문화와 역사기행 : 교양강좌인 이 강의는 오프라인 상에서만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사이버 강의다. 강의는 '가이더'를 자임한 교육자가 학습자들과 함께 중국 방방곡곡으로 가상여행을 떠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가이더'는 먼저 '여행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각 지역의 지리적 특색과 그 지방의 역사, 문화, 문학에 얽힌 에피소드를 설명하고, 필자가 수집한 관련 동영상 테이프를 참고로 시청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은 주어진 사이버 공간에 답사여행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출석체크, 성적 평가방법과 함께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이 강좌의 목표는 단순한 여행정보를 얻고 중국과 관련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행'이라는 형식을 통해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 우주관을 올바르게 정립하는데 있다. 때문에 강의의 부제목을 [드넓은 중국땅, 눈을 뜨는 여행길]로 정했다.[40]

c. 중국문학의 이해 : 삶은 필경 하나의 여행과도 같은 것. 순수한 사이버 강의인 이 교양강좌 역시 여행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먼저 '중국문학'이 서구의 'Literature'와 그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우리의 삶과 직결된 13개의 테마를 설정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동영상 강의 옆에는 하이퍼텍스트를 장착하여, 교안과 함께 동영상강의를 보면서 클릭만 하면 강의의 내용과 연관된 이미지 자료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이미지 자료들에 감성적인 말투로 강의 내용을 요약 설명해놓아 그것만 보아도 슬라이드 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꾸며보았다.[41]

이상의 콘텐츠를 강의의 형태로 분류해보면 ① 온라인 강의 ② 온/오프라인 병행 강의 ③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강의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의가 교육자가 제작한 각종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상호작용을 가장 큰 장점으로 삼는 사이버 교육의 효과는 크게 감소되고 말 것이다. 사이버 교육에는 반드시 학습자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기술적으로 지나치

40) http://www.drkimchina.com/2dancing/history.htm
41) http://www.drkimchina.com/2dancing/literal.htm

게 어려우면 학습자들의 참여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한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가 채택한 방법은 학생들에게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곳에 주어진 과제를 실행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는 아래의 글에서 소개하겠다.

(3) 학습자의 멀티미디어 글쓰기와 의견교환

시각 및 청각 효과를 최대한 살린 멀티미디어 텍스트의 제공을 통하여 교육자의 정서를 자신의 것으로 즐겁게 공유하게 된 학습자들은, '즐거운 글쓰기'를 통해 텍스트의 '되돌아보기(Review)' 단계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멀티미디어 문학교육의 핵심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흔히 사이버 교육이라고 하면 지식과 정보의 교환만을 연상하지만, 사실 인터넷이야말로 글쓰기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 전달주입식(Banking Education)의 교육 방식은 현장 교육에서도 큰 문제이지만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면 더욱 큰 역기능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인문학 교육의 핵심은 글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자는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편찬한 멀티미디어 문학교재, 《시경》을 줄줄 암송할 수 있어야만 정치를 맡길 수 있다고 했다.[42] 공자가 말하는 '암송'은 단순 암기가 아니다.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던 그 당시의 '암송'이란 '외워서 활용하는 것', 바로 곧 '글쓰기'를 의미했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비판적 사고와 문화적 감수성, 그리고 창의력을 배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쓰기', 그중에서도 '멀티미디어 글쓰기'다. '글쓰기'의 문제야말로 사이버 문학교육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초석인 것이다.

'글쓰기'는 과연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 최근 캠퍼스 내에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 clinic'까지 운용하고 있는 서울대에서도 글쓰기를 훈련시킬 수 있는 과목의 개발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할 만큼,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는 모범 답안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 같다. 이에 필자의 경험을

42) ≪論語·子路≫: "誦詩三百, 授之以政."

근거로 몇 가지 '글쓰기' 교육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보겠다.

① 즐거운 글쓰기. 모든 것을 떠나서 먼저 글은 즐겁게 읽고 즐겁게 쓸 수 있어야 한다. 교육자들은 학습자들에게 재미있고 즐거운 보고서를 써내도록 유도하자. 그래야만 학습자들이 글쓰기에 재미와 습관을 붙일 수 있다. 어떤 글이 즐거운 글일까?

a.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살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글. 사이버 공간은 그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다. 필자는 홈페이지의 [만남의 터]에 [보고서 제출 영역을 따로 설정해놓고 게시판 기능을 이용하여 모든 학습자들에게 자신만의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 '사이버 노트'를 자신만의 '방(또는 일기장으로 호칭)'으로 삼아, 교육자가 제공한 멀티미디어 텍스트를 감상한 소감을 자유롭게 쓰게 하고 있다. 이때, 태그 기능을 이용하여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사진, 지도 등의 이미지와 음악을 올릴 수도 있고, 글자의 크기와 색깔을 조절하여 중요한 점을 강조할 수도 있다. 자신의 공간을 싱그럽고 아름답게 정성껏 꾸미도록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자신의 글이 공개된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가지던 학습자들도 서로의 글을 비교해보면서 점차 익숙해진다. 이윽고 학습자는 자신이 지극 정성으로 가꾼 이 멀티미디어 문학공간에 강한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찾아오게 마련이다.[43]

43)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보고서 작성법], [보고서 사례]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트 이용 팁] 메뉴에서는 태그 사용법 등을 소개해주고 있다. 몇몇 학습자들이 작성한 멀티미디어 글쓰기의 실례를 소개한다(로그인 필요) 이곳은 방문자의 조회수와 댓글이 많이 달려있다.
http://www.drkimchina.com/bbs/zboard.php?id=report_ex&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
http://www.drkimchina.com/bbs/zboard.php?id=2006_1_l&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3
http://www.drkimchina.com/bbs/zboard.php?id=2006_1_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7
http://www.drkimchina.com/bbs/zboard.php?id=2006_1_l&page=6&sn1=

b. 화자의 목소리가 담긴 생명력이 넘치는 글. 지식과 이론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문학교육은 맞춤법과 문법 따위를 지나치게 숭배한다. 그러다보면 글쓴이의 독특한 말투에 담긴 개성이 사라지게 된다. 개성이 없는 글은 죽은 글이다. 천편일률적이 된다. 그런 글은 읽기가 싫어진다. 독서를 기피하는 현상도, 그래서 인문학의 위기라고 떠드는 것도 상당 부분 이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공자의 어록인 ≪논어≫의 가장 큰 특징은 시정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생생한 구어체라는 점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논어≫의 첫 구절인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는 오늘날 우리에게나 근엄한 문언문이지, 그 당시에는 지극히 일상적인 구어였음을 알아야 한다.[44]

필자는 학습자들에게 구속을 벗어던진, 개성이 살아있는 자유로운 글쓰기를 권장한다. 부드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면 때로 맞춤법을 무

&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3
http://www.drkimchina.com/bbs/zboard.php?id=2006_1_1&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55

44) 중국의 언어와 문자의 괴리 현상은 당송(唐宋) 시대에 심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유(韓愈)를 필두로 한 당송의 복고주의자들은 번문욕례(繁文縟禮)와 경전 해석이라는 형식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진 유학에, 공자의 정신을 새롭게 주입하여 유가의 중흥을 꾀했다. 이러한 사상적 복고의 노력은 일정부분 성공한 모습을 보인 반면, 문체(文體)의 복고운동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그 당시 유행하던 4·6 변문(騈文)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선진 시대의 자유로운 산체(散體)의 문장을 사용하자는 취지까지는 너무나 좋았으나, 이미 몇 천 년의 세월이 흐른 공자 시대의 언어를 그들이 사용하는 문장의 표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로부터 유가는 점점 민중들이 사용하는 구어와 괴리의 길을 걷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당송의 복고운동가들은 공자의 문학정신을 본받았다기보다는, 그 당시 민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는 완전히 괴리된 옛날 언어만을 모방하고 흉내 낸 꼴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자 그 간극은 점점 더 벌어졌다. 언어란 자꾸만 변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청나라 말엽이 되도록 공자 시대의 언어로 글쓰기를 고집한 사이비 복고주의자들 때문이었다. 언어와 문자의 괴리는 이렇듯 무서운 간극의 벽을 만든다. 졸고, <五四 新文化運動의 전통과 반전통 요인에 대한 고찰> 참조, ≪중국학연구≫제 14집, 1998. 6.

시해도 좋고,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이모티콘의 사용도 물론 허용한다. 그러나 실수로 인한 오타나, 맞춤법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적해주고 넘어간다.

언어와 문자의 괴리는 심각한 간극의 벽을 만든다. 인터넷 용어라고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중에서도 온유돈후의 따끈따끈하고 말랑말랑한 성격의 언어는 적극 수용하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특히 어미(語尾)가 중요하다. 젊은 학습자들에게 유행하는 어미는 "~~여", "~~염", "~~삼", "~~세연" 등인데, 즐겁고 부드러운 의사소통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의 경우, 그러한 어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주면서 보다 바람직한 새로운 어미의 말투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하시와요"와 같은 고어(古語) 말투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학습자들도 흥미를 느껴 최근에는 필자의 고어체 말투를 흉내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교육자와 학습자의 호칭문제도 의사소통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딱딱한 호칭은 괴리감과 위화감을 조성하기 마련이므로, 일반적으로 네티즌들은 '아무개 님'이라고 부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어색하다. 필자의 경우, 얼굴을 모르는 사이버 강의의 학습자에게는 '아무개 나그네'라고 불러주고, 얼굴을 알고 있는 학습자들을 사이버 상에서 불러줄 때는 그 역시 고어체로 "아무개 도령", "아무개 낭자"로 불러준다. 학습자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모두가 학습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

② '만남'의 글쓰기. '즐거운 글쓰기' 교육은 교육자도 함께 참여하는 쌍방형 '만남'의 글이어야 한다. 사이버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도 교육자/학습자 간에 '상호작용의 공간(interface)'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그 장점을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글쓰기 지도다. 상호작용은 글쓰기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때 글쓰기를 지도하는 교육자가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다.

a. 권위의식을 버리고 관리자, 또는 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배우며 즐기는 엔터테이너(Entertainer)의 입장에 서야 한다. 특히 대학교수들은 흔히 관념적이고 현학적인 단어로 난해한 글을 쓰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절대 금물이다. 교육자도 학습자들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눈높이를 맞추자. 공자처럼 평범하고 쉬운 일상생활 속의

언어로 글을 쓰자. 필요하다면 젊은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함께 즐기자. 그러다보면 교육자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시대의 트랜드를 이해하게 되고, 학문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게 된다. 그것이 공자가 말한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정신 아니겠는가.

b.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단정 지어 말하면 안 된다. 설령 그것이 전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학습자들은 그 가치판단에 맹종하기 싫다는 심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자는 작품의 주제, 또는 도덕성 및 가치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면화하여 직접적으로 설교하지 말고, 단지 자상한 안내로 학생들이 마음속에 강한 느낌을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45] 그래야 학습자의 텍스트에 대한 자유로운 감상과

45) 이것이 문학교육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내면화의 원리'다. (정동화 외 2인, ≪국어과 교육론≫, 400쪽 참조. 선일문화사, 1996.) 그 실례를 들어보자. 필자는 오프라인 강의 시에, 수업이 일단 시작되면 강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휴식 시간이 되어야 문을 열어준다. 아래에 소개하는 글은 온/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하고 있는 '중국문학사' 과목의 한 수강생이 5분 늦게 왔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연을 그 학습자의 사이버 일기장에서 읽고 필자가 댓글을 단 것이다. 글이 제법 장문인데, 이것은 그 한 명의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강하는 모든 학습자에게 완곡하게 권면하기 위함이었다.
** 보고픈(^ㅜ^) 낭자, 숭산 소림사를 아시오이까? 그리운(^ㅠ^) 낭자, 그 안에 있는 입설정(立雪亭)이라는 정자를 아시오이까? ** 보고푼 낭자, 옛날옛날, 달마대사가 그 안에서 참선을 하는데, 한 스님이 찾아왔다하더이다~! 대사님~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달마대사, 귀찮았는지(?) 상대도 안 했다하더이다~! 그런데도 그 스님,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밖에서 계속 버텼다하더이다, 낭자~! ** 그리운 낭자, 달마대사 생각 왈, '지가 그래봤자 쫌 있다 가겠지', 했다 하더이다. 밤이 찾아오고, 다시 아침이 되었다 하더이다. 달마대사 이빨 닦으시러(?) 밖에 나와 보니, 아니 이런, 이런~!! 밤새 함박눈이 펑펑 내렸는데, 그 스님이 꼼짝 않고 그 눈을 고대로 다 뒤집어쓰고 밖에 그대로 서 있었다하더이다, 낭자~! 스님, 지친 목소리로 그러나 힘 있게, "대사님~ 제자로 삼아주소사!" ** 보고푼 낭자, 그래서 어찌 되었겠소이까? 그래, 네 정성이 갸륵하고나~! 제자로 삼아주었을 것 같소이까? 아니오이다, 낭자~! ** 그리운 낭자, 달마대사 대갈일성, 호통 치며 왈 : "어여 가거라~! 그런다고 받아줄 줄 아느냐? 흥=33 어림없다~!" 무정하게 돌아섰다하더이다, 낭자~! ** 그래서 어찌 되었겠소이까, 낭자~! 그 스님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었는지라 자신의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 칼(!)을 뽑아들고 자신의 왼팔을 그 자리에서 썩뚝~! 잘라 버렸다하더이다, 보고푼 낭자~! ** 하아얀 눈밭에 새빨간 선혈이 흩뿌려졌다하더이다, 낭자~! 그걸 본 달마대사, 그 간절함을 비로소 인정하고, "오호~~ 네 결심이 참으로 갸륵한지고~~" 마침내 제자로 받아 주었다하더이다,

창의력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다.

c.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댓글을 통해 최종적으로 교육자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 이 때의 의견 제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감상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아직 텍스트 이해와 감상의 방법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길라잡이의 역할을 담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흔히 사이버교육은 현장에서 그 즉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그것은 학문을 지식과 정보의 교환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감성과 지혜의 배양을 목표로 하는 동양학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일정 시간 혼자서 문제해결을 위한 사색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46]

d. 이러한 글쓰기 지도는 교육자 혼자서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 따라서 강의가 일정궤도에 오르면, 학습자들의 조별 활동을 통한 자발적인 토론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자는 학습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각 조마다 조장을 선정해주고 댓글을 통해 조원들을 격려하고 문제점을 부드럽게 지적해주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교육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의견교환의 장에 참여해야 한다. 이는 수많은 학습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정보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그에 따른 새로운 교수방법을 끊임

그리운 낭자~! ** 낭자, 그가 바로 곧 중국 선종의 제 2대 조사(祖師)가 된 혜가(慧可) 스님이라하더이다, 보고픈 낭자~! ** 낭자, 혹시 뭔가 가슴 속 깊은 곳에 feel이 찌르르~~ 땡겨지는 건 없으신지 궁금하오이다, 그리운 낭자~! ㅋ~~~

46) 논문 발표 시, 이 부분에서 토론자는 학습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사색의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라 넷 상에서 딴 짓을 하고 있거나, 심지어 아예 컴퓨터를 떠나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사유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현상학적인 발상이다. 기능적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의 이야기다. 감성과 지혜를 배우는 공부는 책상 앞에 계속 앉아있다고 해서 단기간에 외우고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학습자들에게 생각해 볼 '꺼리'를 던져주면서, 주로 딴 짓을 하면서 생각나면 생각해보라고 권한다. 산책을 하거나, 일몰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떠오르면 생각해보길 권한다. 감성과 지혜를 배양할 수 있는 사색 '꺼리'들은 오래 생각하면 오래 생각할수록 더 좋지 않겠는가? 삶에는 정답이 따로 없는 법. 정답보다는 사유하는 시간,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없이 연구 개발해야 하는 현대에서는, 공자가 말한 회이불권(誨而不倦)'의 교육정신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인 것이다.

이상에서 사이버 상의 글쓰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그 외의 측면은 이 글에서는 아래와 같이 간단히 언급하고 차후에 보다 상세한 발표의 장을 갖도록 하겠다.

③ 서정적 글쓰기. 모든 글은 내용의 학문성 여부를 떠나서 먼저 감성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즉 따끈따끈하고 말랑말랑한 이야기, 머리로 쓴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쓴 이야기, 글쓴이의 자아 성찰, 그리고 대자연을 경외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감성적인 글로 시작해야만 읽는 이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다.

④ 정성의 글쓰기. 글은 재주로 쓰는 것이 아니다. 정성으로 쓰는 것이다. 글재주가 뛰어난 유명 소설가가 대충 쓴 글보다는,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와 온 정성을 다해서 쓴 글이 오히려 읽는 이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다.

⑤ 식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글쓰기. '즐거운 글쓰기'는 감성적 만족과 동시에 지식도 함께 얻을 수 있는 내용 있는 글이어야 한다. 흔히 감성과 지혜를 강조하면 이성과 지식을 경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우나, 이성과 감성, 지식과 지혜는 서로 대립되는 적대적 개념이 아니다. 동전의 양면이요, 바라보는 각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용어일 것이다. 그러므로 글쓰기 역시 궁극적으로는 이성과 감성이 어우러진 조화의 글쓰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교육자는 문장이 구비해야 할 형식과 구조, 그리고 읽는 이로 하여금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논리의 전개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글쓰기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한국적 교육 상황에서 갑자기 한꺼번에 모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저학년에게는 보다 감성적인 글을, 고학년에게는 보다 이성적인 글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경험으로 보아,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을 위한 강좌

를 별도로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그보다는 모든 인문학 과목은 시험 아닌 보고서로 성적을 평가하도록 학교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창의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글쓰기 교육 방법으로 사료된다.[47] 그 최상의 수단은 사이버 교육임은 물론이다.

(4) 출석체크와 성적 평가

이미 누차 말했듯이 지식전달주입 방식의 사이버교육은 자칫 역기능을 초래하기 쉽다. 사이버교육은 감성적이고 즐거운 멀티미디어 글쓰기 교육에 강점을 지닌다. 이러한 교육의 성적 평가는 기능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주관식 답안을 어떻게 기능적으로 채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일정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앞서 제시한 글쓰기의 다섯 가지 조건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그 정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성적 평가의 또 한 가지 주요 근거가 될 출석체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약정된 시간 안에 작성하여 제출되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교육자가 제공한 감성적 텍스트를 학습자가 제대로 수강했는지 저절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이버 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글쓰기 교육에 대한 평가는 매우 공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담당 교육자는 학습자의 얼굴도 모르고 나이도 모른다. 심지어 이름만 보고 성별을 혼동할 경우도 있다. 그만큼 철저히 선입견을 버리고 학습자의 내면세계만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겠는가.

Ⅳ. 맺는 말

삶의 지혜를 추구하는 '감성'의 학문, 동양학의 인문정신과 학문하기의

47) 보고서는 물론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글이어야 하겠다.

방법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왜곡되고 소외되어왔다. 같은 문화권에 속한다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참된 정신은 온데간데없이, 지식과 이성, 진보와 투쟁이라는 서구적 사고의 틀만이 한 시대를 지배해 왔다. 그러나 이제 21세기. 우주로 무대를 옮긴 새로운 첨단 과학의 시대에서 한계에 부딪친 서구 문명은 수많은 문제점에 봉착한 인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안으로 동양에 눈을 돌리고 있다. 너무나도 좁아진 지구 마을의 울타리 안에서 드디어 고대 동양의 인문정신과 컴퓨터와 인터넷이 대변하는 현대의 서양문명이 하나로 만난 것이다.

21세기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계화의 시대다. 좁아진 지구 마을 안에서 모두가 하나로 아름답게 어우러져야 하는 조화의 시대다. 그러나 조화는 결코 쉽지 않다.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려면 뼈를 깎는 자기희생과 봉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러한 조화의 정신을 갖추기를 바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유가에서는 대학인(大學人), 즉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리더 그룹에게만 희생과 봉사로 조화를 이루어나갈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그 주체가 누구인지,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이 앞장서서 동양의 인문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할 때다. 학생들과의 눈높이 대화와 교수들 간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즐거운 학문하기'의 새로운 '교수-학습'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때다.

이의 실천을 위해 공자가 제시한 키워드는 '온유돈후'! 즉 인간의 마음을 따끈따끈하고 말랑말랑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문학적 학문하기다. 문학이란 결코 문학을 전공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문학교육의 대상자는 절대로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문학교수만이 문학교육을 담당하는 주체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대학의 모든 교육자들이 다 함께 동참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학에 흥미를 상실한다는 것은 모든 학문에 흥미를 상실한다는 말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학문을 문학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은 '이성(理性)'으로 '지식만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감성'으로 '지혜'를 가르치는 방식의 교육

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동참해야 할 것인가? 앞서 말했듯이 먼저 대학교수들, 특히 중국문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엄숙주의를 타파하고, 감성으로 느낄 수 있는 보드랍고 따스한 교육을 시행해야만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직관으로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관념적이고 현학적인 단어로 지식을 과시하며 난해하기 짝이 없는 글을 쓰는 습관부터 버리자. 나 혼자만의, 극소수만을 위한 학문적 태도를 버리자. 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중국문학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수들부터 인식의 대전환을 가지고 새롭게 온유돈후의 문학을 배우자. 그것으로 모든 학문하기의 초석을 삼도록 하자. 시대의 흐름인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든 학문의 텍스트를 즐겁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이버 상에 새롭게 구현하자. 그래야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래야 학문을 통한 진정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아름다운 학풍이 창조될 수 있다. 그래야 감성과 지혜의 교육을 선도하는 중국문학의 대중화를 이 사회에 구현할 수 있다. 더구나 현대는 평생교육의 시대 아닌가.

<參考文獻>

劉勰, 《文心雕龍》, 開明書店, 臺灣. 1978.
郭紹虞,《中國文學批評史》, 明倫出版社. 1978.
郭預衡, 《中國散文簡史》,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3.
朱榮智, 《文氣與文章創作關係研究》, 臺灣 師大書苑, 1988.
安徽人民出版社 編輯部, 《桐城派研究論文集》, 安徽人民出版社.
張靜二, 《文氣論詮》, 五南圖書出版公司. 1994.
夏丏尊, 《文心》,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0.
姚一葦, 《美的範疇論》, 開明書店. 1982.

朱光潛, 《談美學》,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
簡鐵浩, 《朗誦研究論文集》, 嵩華出版事業公司, 홍콩, 1978.
周振甫, 《怎樣學習古文》, 臺灣 師大書苑, 1990.
Walter, J. Ong,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이대규, 《국어과 교육방법론》대교출판사, 1996.
백영균, 《인터넷과 교육》, 양서원, 1997.
高行健, <文學與玄學, 關于《靈山》>, 《諾貝爾文學獎衝擊波》, 中國文化出版社, 2000. 11.
김세환, 《끝나지 않은 식민지 학문 100년》, 박이정 2004. 11.
졸고, <古文 音律의 藝術的 效果에 대한 硏究>, 《中國學硏究》제9집, 1995. 2.
최수영, <인터넷과 영어교육>, 《인문과학연구》3, 동덕여대 인문과학연구소. 1997.2.
졸고, <五四 新文化運動의 傳統과 反傳統 요인에 대한 고찰>, 《중국학연구》제14집, 1998.
졸고, <한국 대학에서의 중국 고문 교육에 대한 일 고찰>, 《中語中文學》제 23집. 1998.
졸고, <페미니즘 시각에서 고찰한 중국 산문의 陰柔 풍격에 대한 연구>, 《中語中文學》제26집, 2000.
졸고, <소리로 표현된 중국 산문의 생명력>, 《중어중문학》제35집, 2004. 12.
졸고, <중국문학과 소리의 靈性> 참조, 《중국학연구》제30집, 2004. 12.
www.drkimchina.com

<中文提要>

一般认为: 网上讲课仅能符合有关知识情报方面的教育, 而不甚适用于人文学。其实不然。就中国传统治学的角度来看, '中国文学'与'网络世界'有一脉相通之处。

(1) 网络世界是属于'Multi'性的、整体性的、复合性的。西方的'Literature'习惯使用'文字效果', 不太重视其中所隐含的'听觉效果', 可以说是单方面的学问。'中国文学'则不然。中国古代文学非常重视语言的音乐性, '因声求气'、'以声传情', 除了使用文字效果之外, 兼用听觉效果, 可谓'Multi'学问。

⑵ '视觉'带有分离性, 需要理性的力量; 听觉带有结合性, 充满着情感的成分。西方的'Literature'重视视觉现象, 非常讲究分析理论, 需要理性的力量; 东方的传统'文学'重视听觉效果, 朗诵起来, 充满着情感的成分。这就是'Multi'效果。

⑶ 文学的最终目标在于'真'、'善'的世界, 然而得先从'美'着手。所谓'美'者, 从何而来? 是从'乐'而来的。人类的快乐来自于五感的满足, 而感觉越满足快乐越大, 这也是'Multi'效果。 网络世界之所以能吸引人类, 其原因就在此; 带有'Multi'性质的中国古典文学的长处也在此。因此, 网上讲课必需积极活用中国文学中的听觉效果, 如此以来就可消除它的弊端, 亦可开发它本身带有的肯定性的种种功能。

⑷ 网络世界等于'Multimedia Text'。网上讲课时, 教育者得要活用听觉效果来制作引人愉快的'Multimedia Text'才对。之後, 让学习者把读完教育者所提供的'Multimedia Text'後的感处写在网上。换句话说, 让学生们制作另一个'Multimedia Text'。老师读完之後再提出意见, 如此继续和学生交换意见。这样以来, 也可以指导作文之法, 也可以培养学生的感受能力以及判断能力。

주제어 : 인터넷, 인터넷 강의, 청각효과, 감성